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호 【주제 제24613호】주제 103(2014)년 7월 19일 (토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사회주의농촌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부문의 앞길을 밝혀주는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 발표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기간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영인불멸할 사상리론적업적을 쌓아올리셨다.

일찍이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농업생산을 모든 힘을 집중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으로부터 사회주의위업승리의 돌파구를 여시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이요 의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새 사회건설을 위한 민주개혁도 토지개혁으로부터 시작하시었고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함에 안으신 것처럼 복잡하고 바쁜 속에서도 농촌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셨다. 위대한 헌신의 그 길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압록강의 지류길도 마련하시었고 소박한 농민들의 목소리도 그대로 정책에 담으시며 농업부문의 앞길을 밝혀주는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 34(1945)년 10월 16일 《토지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신 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보고, 연설, 서한, 담화 등 여러 형식으로 농업부문에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로작들을 수없이 많다.

지금 온 나라 천만민중은 한평생 우리 인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이 땅의 포전길을 위업없이 밟으시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이 곧 사상리론으로, 로선과 정책으로 되었으며 인민대중에게 쉽게 리해되고 그들이 나아갈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한 피어린 항일대전을 조직령도하시던 그 시기에 벌써 제방에서 마구똥 농사를 지어보려는 농민들의 세기적수요를 기어이 풀어주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이 해방된지 두달밖에 안되던 때에 《토지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시고 그 이듬해 봄에는 역사적인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시었다. 그리고 새 조국건설의 그처럼 바쁜 속에서도 농촌에 나가시어 어제 날 머슴꾼이 부여받은 땅에 손수 표밭을 밟아주시고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도 하시었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토지개혁령 발표는 민족적특성에서 출발한것이다》, 《농민들앞에 나선 기본과업은 농사를 잘 짓는것이다》 등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제방이 없어 대대로 착취와 압박, 무지와 빈궁속에 헤매이던 이 나라 농민들의 가슴속에 맺힌 주된, 새 조국건설의 주인된 자각을 깊이 새겨주시었다.

기꺼한 전화의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비해지는 농촌건설을 수없이 걸으시며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전신농업생산을 추켜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셨다. 이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식량을 증산하기 위한 후방사업을 강화하자》, 《북부고지대개발사업을 진행할데 대하여》 등의 로작들은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이 한치의 땅도 목치지 않고 더 많은 알곡을 증산한 자랑높이 전승광장에 멋있게 나설수 있게 해준 신념의 표제, 삶의 기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개인농민경영을 허용하여 농민들을 사회주의길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며 《농업협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에서 얻은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등 수많은 로작을 발표하시었고 사회주의 농업협동화가 성과적으로 완성된 이후에는 사회주의농촌경제제도를 공고하며 더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면서 더욱 그 위업을 중시하고 용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몸소 지렛의 정원에서 시범포전을 꾸리고 시범하시는 한편 수천수만의 현지지도길을 이어가시는 나날에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는 과학적인 재배기술과 방법을 하나하나 연구완성하시었으며 세계적인 선진농업과학기술성과들도 깊이 분석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모든것을 품을 들어 집대성하시으로써 우리 식의 농법을 완성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이 농법을 주제 농업으로 정식화하시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도록 혁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의 영광을 이겨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출데 대하여》,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 등 많은 로작들에서 농사를 우리의 기후풍토와 실정에 맞게 안전하게 짓기 위한 방법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오늘 그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분조관리제도 우리 농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늘 마음쓰신데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사색속에 창조된 가장 우월한 생산조직 형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제 54(1965)년 5월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찾으신고 농장관리일군 및 농장원회의에서 《분조관리제를 실시하여 좋은 경험을 창조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197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업부문 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면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농촌경제의 실현에서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로대우하여 올려세우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제에 관한 레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농촌문제해결의 길을 확실히 밝혀준 불멸의 대강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방향과 원칙,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

으로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었다. 국제국내적으로 사회주의농촌이 나아갈 길을 활활짓을 철박하게 요구하고있던 때에 발표된 이 로작은 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빛나는 업적을 창조할수 있게 해준 위대한 고부적기이다.

오늘 그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분조관리제도 우리 농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늘 마음쓰신데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사색속에 창조된 가장 우월한 생산조직 형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제 54(1965)년 5월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찾으신고 농장관리일군 및 농장원회의에서 《분조관리제를 실시하여 좋은 경험을 창조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197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업부문 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면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농촌경제의 실현에서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로대우하여 올려세우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제에 관한 레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농촌문제해결의 길을 확실히 밝혀준 불멸의 대강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방향과 원칙,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

으로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었다. 국제국내적으로 사회주의농촌이 나아갈 길을 활활짓을 철박하게 요구하고있던 때에 발표된 이 로작은 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빛나는 업적을 창조할수 있게 해준 위대한 고부적기이다.

오늘 그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분조관리제도 우리 농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늘 마음쓰신데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사색속에 창조된 가장 우월한 생산조직 형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제 54(1965)년 5월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찾으신고 농장관리일군 및 농장원회의에서 《분조관리제를 실시하여 좋은 경험을 창조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197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업부문 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면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농촌경제의 실현에서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로대우하여 올려세우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제에 관한 레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농촌문제해결의 길을 확실히 밝혀준 불멸의 대강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방향과 원칙,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

으로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었다. 국제국내적으로 사회주의농촌이 나아갈 길을 활활짓을 철박하게 요구하고있던 때에 발표된 이 로작은 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빛나는 업적을 창조할수 있게 해준 위대한 고부적기이다.

오늘 그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분조관리제도 우리 농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늘 마음쓰신데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사색속에 창조된 가장 우월한 생산조직 형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제 54(1965)년 5월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찾으신고 농장관리일군 및 농장원회의에서 《분조관리제를 실시하여 좋은 경험을 창조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197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업부문 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면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농촌경제의 실현에서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로대우하여 올려세우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제에 관한 레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농촌문제해결의 길을 확실히 밝혀준 불멸의 대강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방향과 원칙,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

### 조국번영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 날바다를 가로막은 서해갑문이 큰 은을 낸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날바다를 가로막고 거대한 솟아오른 로동당시대의 대가비적 창조물인 서해갑문을 찾으시어 준공예를 끝내고 갑문건설완공을 선포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28년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긴 고귀한 애국유산인 하나인 서해갑문은 인민경제발전에서 실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색을 빛내이고 유순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히 실현하여야 한다.》

서해갑문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천히 배를 타시고 날바다를 헤치시며 갑문위치도

#### 해주시 살림집건설 적극 추진

황해남도에서 해주시 선군시대의 향기분화되시도록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살림집건설을 적극 내밀고있다.

360세대 살림집건설이 완공단계에 들어갔으며 416세대의 살림집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도시건설은 도시경제계획을 잘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선군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바쁜 속에서도 해주시의 도시경정사업에 주체적으로 로해하시고 그 건설을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해주시의 도시경정사업을 개선하고 그 명도를 일신시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을 높은 힘을 넣고있다. 특히 살림집건설계획을 단계별로 명백히 세

#### 강철전선에 더 많은 파철을 각 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을 높이 받들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삼반년기간에 많은 량의 파철을 모아 금속공장에 보내주었다.

강철전선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사회적관심속에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속에 삼반년기간 거의 모든 시, 군들에서 맡겨진 파철모으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단기간에 획한수단위가 날로 늘어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철강재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서는 전국이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의 일보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났다.

각 도, 시, 군의 책임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애국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는 한편 현지에서 걸린 고리들을 알아보고 끌어주는 사업을 혁명적으로

평안북도, 평안남도의 책임일군들은 삼반년기간 파철원천탐구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현지에서 수송대책을 세워주어 애써 모아놓은 파철을 제때에 금속공장으로 보내주는 사업을 잘하였다. 특히 평안남도에서는 지역별, 단위별, 단계별로 맹렬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면서 일터와 마을, 건설장 등 곳곳에서 많은 파철원천을 찾아 강철전선에 보내주었다.

강철전선들과 한친호에서 있다가 승고한 공민적자격을 안고 그 어느때보다 파철모으기를 활발히 벌리고있는 여러 공장, 기업소에서 년간 파철모으기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혁신이 창조되었다.

전천착암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내부에비블 격류 탐구동원하여 뜻깊은 6월 19일을 맞으며 년간 파철모으기계획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보전에서도 일군들이 강철전선지원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고 현지에서 내려가 걸린

#### 20만 산대발파 진행

평안북도간석지 건설현황기공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2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현합기업소간석지 건설자들은 홍건도간석지건설 3호제방성토공사를 중단없이 내밀기 위해 20만산대발파를 진행할것을 결심하였다.

파산간석지건설기공소의 산대발파를 제때에 풀이주면서 삼반년기간에 년간 파철모으기계획을 완수하였다.

출판지도국, 평양연예지도국, 국가계획위원회, 금성정치대학을 비롯한 여러 성, 중앙기관에서도 삼반년기간에 많은 파철을 모아 금속공장에 보내주었으며 그 기세로 이달에 들어와서도 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고있다.

철도수송부문의 수송전선들은 증중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금속공장에 대한 높은 동수송을 책임적으로 하였다.

함흥철도국의 수송지휘일군들은 파철이 집중되어있는 역들에 나가 물동량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사명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모아놓은 파철을 제때에 금속공장에 보내주기 위한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수행하였다.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지원열의에 크게 고무된 각지 공장, 기업소들의 로동계급은 지금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욱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6(1987)년 10월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 김정은



주체사상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1(1982)년 4월



창광거리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4(1985)년 8월



사회주의협동벌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5(1986)년 4월



만경대물놀이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4(1985)년 8월



← 완공된 창광원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9(1980)년 3월

☆

☆ ☆

→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빛내여주기 위한 사업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1(1982)년 12월













# 7월과 8월은 풀베기철이다. 역량을 집중하여 풀더미를 높이 쌓자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제1세대 제1선창호를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당면한 풀베기와 풀거름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에서 주되는 힘을 풀베기에 들리도록 강하게 내밀어야 하겠습니니다.》** 신원군 신창협동농장에서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던데 이어 도의 농촌들에서 역량을 집중중하여 풀베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의 모든 농촌들에서 매년 없는 양자를 이겨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풀베기와 풀거름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치고있다. 도농촌정리위원회 비롯한 농업부문 일군들이 실정에 맞게 아래에 내려가 기술지도를 펴내주고있다. 해주시와 각 군의 농촌당일군들이 전투현장에 들어가 풀거름생산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김매기를 다그쳐 끝낸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또다시 풀베기전투에 진입하여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기세를 올리고있다.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된 신원군의 협동농장들에서 풀베기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신창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은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매일 풀베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농장일군들은 작업반, 분조, 농장원별풀베기경쟁을 조직하고 매일 많은 풀을 베어들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군의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풀원천이 풍부한 지역들에 노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풀베기를 다그쳐 실적을 계속 올리고있다. 배천, 신천, 웅진, 안악군과 해주시를 비롯한 별방지대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풀베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곳 협동농장들에서는 산기슭과 도로주변, 포전터미 등지에서 풀을 적극 베어들어가는것과 함께 운반에 유리한 곳들에 퇴적장들을 만들어놓고 잘 썩이고있다. 삼천, 봉천을 비롯한 중산간지대의 군들에서도 산이 많은 유리한 점을 리용하여 많은 풀을 베어들고있다. 동시에 이 단위의 일군들은 트랙트와 달

구지 등 운반수단을 잘 리용하여 풀을 베어들어가는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도 면밀히 하고있다. 강령군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내동협동농장 제7작업반에서 풀베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군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근로단체조직들이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는 방법들이며으로써 풀베기전투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승철



강령군 내동협동농장에서

## 풀베기와 풀거름생산에 힘을 넣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7월과 8월은 풀베기철이다. 역량을 집중하여 풀더미를 높이 쌓자》** 최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앞에는 많은 풀을 베어들어 풀거름을 생산하여야 할 과업이 내리고있다. 풀베기를 제때에 하여 풀거름더미를 높이 쌓아야 지력을 높여 알곡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거름생산이자 알곡생산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풀베기와 풀거름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힘을 놓치지 말고 많은 풀을 베어들어야 한다. 풀베기도 제철이 있다. 7월-8월에 벤 풀에는 9월-10월에 벤것에 비하여 비료성분이 2-3배나 많을뿐 아니라 풀씨가 여름기 전이므로 거름의 질도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풀베기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날자별로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풀씨가 갖기 전에 더 많은 풀을 베어들어야 한다. 풀원천이 많은 곳에 역량을 집중하여 작업반, 분조들에서 맡겨진 풀베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적기에 풀을 베어들어 많은 거름을 생산해야 다음해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매일 풀베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야 한다. 풀거름생산을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아무리 많은 풀을 베었다 하더라도 풀거름의 질을 높이지 못하면 농사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협동농장들에서는 포전가까이에 퇴적장들을

만들어놓고 풀을 실어들이는속도 기술적요구대로 처리하여 질 좋은 풀거름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가들에서도 퇴적장을 잘 만들어놓고 베어둔 풀을 집짐승우리에서 밟혀내야 한다. 일단 베어둔 풀은 목이차 말리우지 말고 제때에 썩여 알맞은 량의 흙과 소석회, 진기름과 섞어 퇴적장들에 쌓아야 한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요즘 농촌들에는 논밭풀베기와 장미철피해막이를 비롯하여 당면하게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전국 농업부문조직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격려사적인 서한을 피뎀하는 심상마다에 받아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는 비할바없이 높다. 문제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가 풀베기전투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도록 일군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어떻게 짜고치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농업부문 일군들은 산관을 타고앉아 전투장이 들끓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풀베기와 운반, 썰기와 쌓는 공정이 잘 맞도록 노력하고 풀을 빚들고 쌓아놓는 일도 함께 베어들이는 풀의 량과 질에 따라 총화평가사업을 제때에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정상적으로 공시하여 대중의 생산열의를 적극 불타일으켜야 한다. 협동농장기술일군들은 퇴적장들을 자주 돌아다니며 풀거름생산을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신군사대 결성운동이 될 공은 각오안고 풀베기와 풀거름생산에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 잡관목도 좋은 거름원천

### 은불군 은혜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화학비료를 대신할수 있는 가장 좋은 유기질비료는 거름이다.》** 은불군 은혜협동농장은 나지막한 산들로 둘러싸여있다. 산들에는 풀보다 잡관목이 더 많다. 이로부터 농장에서는 풀은 물론 쓸모없는 잡관목도 모두 베어들이어 거름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쳤다. 여름철에는 잡관목도 거름생산의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7월과 8월의 잡관목에는 질소성분이 많은것은 물론 수분도 60-80%나 있어 작폐때문이다. 이로부터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풀과 함께 잡관목을 베어들어는속도 거름을 생산하고있다. 특히 거름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농장의 작업반들에는 풀과 잡관목을 썰는 절단기들이 있다. 풀베기가 한창인 요즘 작업반들에서는 절단기의 리용률을 높이고있다. 거름생산을 맡은 농장원들은 풀과 잡관목을 베어들이는속도 절단기로 썰어 진기름물과 흙을 골고루 뿌리면서 퇴적장에 쌓고있다. 이때 거름더미는 대체로 50t씩 퇴적 쌓고 흙을 덮어놓는다. 지난 기간 그들을 거름더미를 이렇게 해놓았다가 20-30일에 한번씩 솟겨 쌓았다. 봄에는 거름더미를 다시 옮겨쌓으면서 썩 색은것과 잘 섞지 않은것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잘 썩지 않은것은 더 색도록 쌓아놓았다. 잘 썩은 거름은 체로 쳐서 보드라운것은 보산비료생산원료로 리용하고 거른것은 포전에 실어내었다. **본사기자 김창길**

## 풀거름질보장에서 어디에 힘을 넣었는가

### 금야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풀거름질보장을 위해 무엇을 중시하고 어디에 힘을 넣어야 하는가. 매일 수천의 풀을 베면서 동시에 거름생산도 따라세우도록 하고있는 금야군 일군들의 사업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 풀베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니다.》** 풀베기를 하는 목적은 질 좋은 풀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군 일군들은 풀거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놓고 의견을 종합하였다. 대체로 풀이 5월부리 시작하여 9월까지 자라는데 어느때 풀을 베는가에 따라 거름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7월부리 8월 사이에 벤 풀에는 질소, 린, 칼리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며 물기가 충분하여 그대로 잘 썩는다. 그러나 9월부리 10월사이에 벤 풀은 비료성분이 적은데다 섬유질이 많고 일출기가 쇠여 잘 썩지도 않는다. 군일군들은 이런 특성에 맞게 풀베기전투를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었다. 군의 실정에서 놓고볼 때 풀

베는 시기는 가을남새뿌리기와 가을잡이준비를 위한 중소농기구수리 등 여러 영농공정들이 겹치는 때이다. 이런 조건에 맞게 일군들은 로력조직을 합리적 것으로 짜고드는데 신창적인 힘을 들이고있다. 여기서 잘한것은 로력을 집중시켜 풀을 베도록 한 것이다. 청년들은 풀원천이 많고 먼곳에서, 녀성들은 포전가까운 구역에서 풀베기를 하도록 조직사업을 하였다. 이와 함께 책임성이 높은 최장년들을 풀베기작업에 고경배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작업반, 분조, 세대별풀베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주고 풀거름을 질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불타일으켰다. 풀베기전투의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농장원들속에서는 포전으로 오고가면서 풀을 베는 기풍이 서게 되었다. 운반조치도 먼곳에는 트랙트르를, 가까운 곳에는 부림소들을 배치하는 원칙에서 짜고들었다. 이렇게 하니 가을남새뿌리 리기전투와 중소농기구수리를 위한보조사업도 풀베기실적을 높일수 있었다. 아무리 제철에 많은 풀을 베었다 해도 그것을 제때에 잘 썩이 지 못하면 질 좋은 풀거름을 생산할수 없다. 여기서 이들이 잘한것은 그날

## 구성시 원진협동농장에서

구성시 원진협동농장에서 풀베기와 관련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할 때였다. 농공맹조직에서는 작업반별경쟁요강을 작성하면서 풀베기실적을 위주로 하여 평가기준을 정하였다. 리당일군은 이 사실을 놓고 생각이 깊었다. 물론 경쟁적인 것만큼 이런 기준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 있었다. 하지만 혁신이 없는 근본원천이 대중의 정신력이라고 볼 때 정신평가를 위한 정치사업 진행정형이 옹당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정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경쟁을 실시할때 벌려야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대중적혁신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리당일군이 제기한 평가기준을 놓고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농장원들이 갖는 산관목에 정한것이었다는 조건에서 이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해나갔다. 농공맹조직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여 경쟁평가기준을 다시 정하였다. 우선 작업반별경쟁총화를 할 때 평가의 50%는 정치사업진

다시 정한 평가기준

## 영농시기별에 따르는 기술적요구

### 논벼생육후반기 병해충피해막이대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 병해충피해가 없는가 하는것을 미리 알고 그 때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논벼생육후반기에 병해충피해를 막는데서 기본은 2세대 벼대벌레의 기류이동성해충인 벼일말이벌레, 벼강충이의 발생시기와 발생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하며 벼일말이벌레, 벼무늬마름병, 뿌리썩음병을 비롯한 각종 병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벼대벌레는 1세대 발생량이 많았기때문에 2세대 발생량도 많을것으로 보고있다. 2세대 벼대벌레의 피해를 입으면 논벼의 평당 이삭수가 적어지는것과 함께 여름물이 떨어진다. 때문에 7월 20일부터 8월 10일사이에 나비등을 쫓고 첫 나비발생으로부터 15일후에는 기생벌을 놓아주며 나비최성기로부터 7-10일후 5일동안에는 농약을 뿌려야 한다. 기류이동성해충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올해기상예보에 의하면 7월에는 강수량이 평년정도이며 8월에는 많을것으로 예견된다. 비가 온 다음에는 날자에 관계없이 포전에함을 진행하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벼강충이는 포충량을 20회 후렸을 때 총일제벌레수가 20-30마리이거나 포기당 새끼벌레가 2-5마리이면 농약을 뿌려야 한다. 벼일말이벌레는 평당 엽지벌레수가 1마리이상 되면 농약을 뿌려 없애야 한다. 벼일말이벌레를 잡자면 접촉성농약과 침투이행성농약을 쓸 때에 나비최성기로부터 7-10일후, 침투이행성농약은 10-15일후에 뿌려야 한다. 논벼의 흰잎마름병, 무늬마름병, 뿌리썩음병의 피해를 막는 데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흰잎마름병은 전례에 피해를 받은 일에서 자를을 난 세균에 의하여 발생한다. 흰잎마름병은 태풍과 비물에 의하여 전파되며 벼가 침수되었을 때, 질소비료를 늦게 주

거나 기준량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한다. 특히 흰잎마름병전염성이 약한 품종을 심은 포전에서 생육후반기 비료주기를 잘하지 못하였거나 침수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발생한다. 흰잎마름병에 걸리면 논벼소출이 적당도 0.8-1t 지어는 고이상 감소된다. 흰잎마름병을 미리막자면 논벼생육상태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조절비료, 이삭비료주는 시기와 조별을 바로 정하며 다원소광물질비료주 등 구조, 카리양양을 보충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생육후반기에 될수록 포화수분상태를 하고 논벼가 침수되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마다 이병에 걸리는 지역이나 포전에서 7월 상순부터 하순사이 0.4%보르도액이나 나노살균제 등을 분무하여야 한다. 무늬마름병은 균일병이 벼대에 붙어 생기는데 7월 상순부터 가을까지 병발생이 확대된다. 이병이 발을일까지 퍼지면 벼이삭이 인차 말라죽으며 발을

일 아래일까지 퍼지면 풍적비물이 높아지고 천일장량이 떨어지므로 7월 상순이 0.5-0.8t 이상 감소된다. 무늬마름병은 풀을 될수록 알개 대거나 포화수분상태를 진행하고 특히 균일병이 증가하는 시기(7월 상순-중순)에 논물을 깊이 대지 말며 침수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막아야 한다. 뿌리썩음병은 전염이나 간섭성, 해해충충적성, 저습논에서 많이 생긴다. 이병에 걸리면 논벼생육이 좋지 못하고 며칠, 개일말이벌레가 쉽게 발생할수 있으며 후반기의 결실이 나빠진것은 논벼 정보당 소출을 떨어뜨린다. 뿌리썩음병을 일으키는것은 혐기성균이므로 이 균에 불리하도록 논물을 배고 제초기로 흙을 뒤섞어 통기조건을 좋게 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원소광물질비료를 비롯하여 뿌리기능을 높여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향철을 산화시키는 리오균비료와 고농도리세균비료를 시비하여야 한다. **농업선진 최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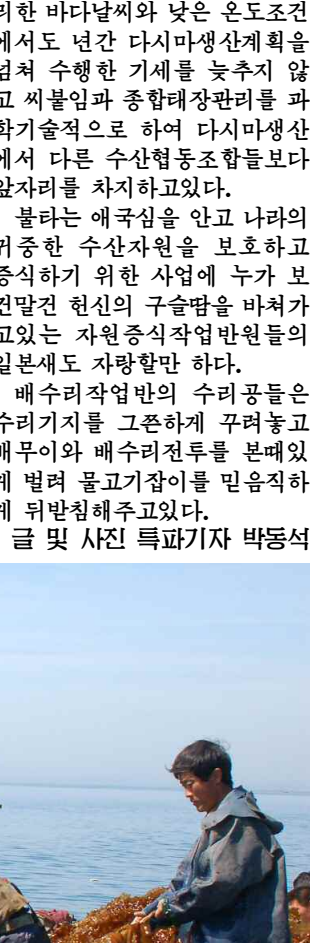
## 물고기잡이와 바다나물생산에서 혁신

### 신창수산협동조합 일군들과 어로공들

신창수산협동조합에서 지난 6월 중순까지 년간 다시마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6월말까지 상반년 물고기잡이계획을 126%로 넘쳐 수행한 기세로 여름철 물고기잡이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이곳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올해 다시마와 물고기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일군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물고기잡이를 힘있게 벌리며 바다야양식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타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왔다. 관리위원장 김승열, 조공당에서 류제용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걸린 문제를 솔선 풀어나갔으며 주도세밀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수산물생산전투를 본래있게 내밀도록 하였다. 수산협동조합에서는 중소기계배를 적극 리용하여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잡이전투를 힘

있게 벌리는 한편 다시마양식장과 자원증식장보관리를 잘하여 수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데 힘을 넣었다. 지난 기간 해마다 맡겨진 수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해온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 양식공들은 사기충천하여 떨쳐나갔다. 작업반들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날마다 물고기잡이와 다시마생산에서 좋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하여 년간 다시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수산협동조합에서는 기세를 높여 1.7배에 달하는 물고기잡이 기록을 창조하였다. 세소 1, 2, 3, 4 작업반의 어로공들은 작은 배들과 어구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고 가까운 바다에 적극 진출하여 여러가지 종류의 물고기잡이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양식작업반의 양식공들은 불

리한 바다날씨와 낮은 온도조건에서도 년간 다시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씨벌림과 종합관리와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다시마생산에서 다른 수산협동조합들보다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나라의 귀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함께 발전시키기 위하여 누가 보건발전 현신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자원증식작업반원들의 일보도 자랑할만 하다. 배수리작업반의 수리공들은 수리기지를 그른채 꾸러놓고 배무이와 배수리전투를 본래있게 벌려 물고기잡이를 믿음직하게 벌릴수있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동석**



어로 1, 2작업반의 어로공들

##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24일에는 여러 종목의 경기(1군)들이 벌어지게 된다. 김일성경기장과 서산축구경기장에서는 16시부터 배틀볼

과 4.25팀사이의 남자축수도 전경기가, 갈매기팀과 압록강팀사이의 여자축수도전경기가 각각 있게 된다. 이날 10시부터

평양체육관에서 4.25팀과 기관팀사이의 여자축수도전경기가, 양각도에서는 김정숙평양 양직공방, 기관, 한덕수평양

경기대학체육단과 조선체육대학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정구경기가 각각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 자기의 처지나 똑바로 알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오바마가 미 행정부에 들어왔을지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 아시아태평양양성전략을 발표한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그 희생물로 만들려고 하였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야말로 자기의 처지도 모르고 헤매비는 소경의 돌팔매질격이라고 할 수 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양성전략강령의 수단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그 허황성은 날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

로씨야를 견제압박하기 위해 이란의 《핵위협》을 구실로 유럽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려 하는데, 중동을 지배하기 위해 《테러분자소탕》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침략무력을 들이밀듯이 미국은 그 무슨 《핵문제》를 걸고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주변 대국들을 짓러놓기 위해 방대한 살인장비들을 조선반도와 주변의 화약강을 대상으로 상사자들을 쌓아놓듯이 차곡차곡 쌓아들이고 있다.

수리아, 우크라이나 사태 조종의 밑줄 조종자라는 딱지가 붙고 대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정책의 실패가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현시기에조차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세계제패 《포부》와 《리상이》 위기의 소용돌이속에 빠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서도 한반도를, 아프가니스탄을 평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 정권의 후보자를 뜻대로 당선시키지 못하였으니 철수여외의 대책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 진전공공하고 있는 주제에 대조선정책에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리비아에서는 반정부세력의 진출에 의한 혼란과 무질서가 미국식민주주의에 대한 저주로 이행되고 있다. 튀니지, 에리트, 에멘, 수리아 등에서 《아랍의 봄》이 지난 3년 동안 약 8000억 US\$ 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몰아왔는 데야 그 어느 나라가 미국을 골케 보겠는가.

주들이 미국의 품에서 떨어져나가는 다른 대국의 배를 타고갈 위험이 존재하는 등 대미리탈의 현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군사적전배를 안겨 걸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 미국배척운동과 움직임이 로폭화되고 있는 국제정세도 미국은 동공몰린 눈으로 불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국방예산삭감은 군부호전광풍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으며 추종자들의 돈을 앗아내는데로 전환되는 정세는 미국의 힘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장성하는 대국들을 누르기 위해 추종자들의 《신세》를 저버리고 국제법칙으로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해 주고 미사일방위체계 테두리에도 끌어들여 대국들과의 명도분쟁을 과시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지역인민들의 뿌리 깊은 력사와 전통문화에 밀려 뒤엎힐 수 없을 것이다.

중동지배전략과 동아시아장악정책으로 로씨야와 중국을 서쪽과 동쪽에서 압축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중도 관계 강하라는 뒤수사력이나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독자성강화와 아프리카, 카라라들의 동맹강화는 미국을 견제하는 이 지역나라들과 다른 대국들과의 협력과 지지성원에 이어지고 나라와 지역들사이의 민족화해결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현실은 미국의 국제적 위기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립증해 준다.

총적으로 미국의 힘은 전해가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전조선반도 지배야망은 줄어드는 늪이든 육지에 불과하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북아시아에서는 정치지도가 달라지고 군사적으로 무력배비책이 변하고 있다. 불안과 위구속에 미국이 바라만 보고있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도 있지만 그것은 곧 군사적합동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조선동해와 남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연습은 연외의 주락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과 같은 위기에 빠진 미국에 대한 단발마적인 군사적행패에 지나지 않는다.

강국을 향해 빠른 지름길로 달리는 조선의 속도는 《전략적내내》정책을 실시해 온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를 가져왔다. 미국 동북진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으며 《전략적내내》정책을 실시해 온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를 가져왔다. 미국 동북진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으며 《전략적내내》정책을 실시해 온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를 가져왔다.

러는 발악은 미국의 기력만을 소모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필 것이다.

우리를 희생시켜 아시아태평양양성전략을 성공시키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만간으로 강철기둥을 뽑아보려는 것과 같은 실현불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오바마 행정부가 대조선정책에서 지극히 천 나가는 일기내에 그 어떤 성과들도 내놓기 힘들다고 평가하는 것은 우연치 않다. 세계에서 《유일초대국》의 위세를 뽐내던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의 맥박은 오늘날 완전한 비정상에 이르렀다.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가해보려는 미국의 군사적행의 과시는 반공화국침략야망을 이루지 못한 범죄자의 칼 휘두르거나 같은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내내》정책의 실패에 대한 분풀이, 속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객관적어른들은 그것이 또한 주변 나라들에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잔피의 발로이라고 전하고 있다.

정치사상강국으로 불리우는 조선과의 대결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만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현명한 전략적방책이며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구하는 대책이라고 충고하는 총체분석가들의 견해를 미당국자들은 흘려들지 말아야 한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현시 미국 처지대로는 불가하다.

미국은 이제라도 대조선정책에서의 무지가 가져올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채 일 출

# 평화에 어진 이 립장이 국제적인 결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남조선당국에 보낸 특별제안을 지지하여 로 드니아사회주의당 최고 리사회의 위원장 바셀레 오를메우씨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지난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원칙적인 입장을 담은 특별제안을 남조선당국에 보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것은 조선민족의 넘 원대로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조선인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7, 4 공동성명과 6.15 북남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중요한 합의문헌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입장과 일치하며, 남조선당국에 보낸 특별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남조선당국이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해나실 것을 기대한다.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는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7, 4 공동성명과 6.15 북남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중요한 합의문헌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입장과 일치하며, 남조선당국에 보낸 특별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남조선당국이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해나실 것을 기대한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 길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호응해나서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영국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영국국의 진보단체들이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남사이의 대결을 끝내고 평화적 대화로 통일문제를 해결할 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어 사소한 사건도 군사적충돌을 일으키고 제약을 받아올 수 있다.

첨예한 정세의 엄중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헌에 생애의 마지막 천필을 남기신 20년을 맞으며 공화국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대담하고도 충성한 조치를 취하였다.

남조선당국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외세의 존립장을 버리고 조선을 반대로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공화국정부성명은 조선이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밑에 나라의 평화화통일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하며 성의껏 노력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호응해나서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 구 바에서 행사 진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 개막식이 6월 25일 아바나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구바공산당, 구바와우성, 구바 제 1인민간의 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 구바위원회 등의 일꾼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 주제 우리 나라 특별전선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구바국가의 연악으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통일지지 구바위원회 부위원장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타노는 지난 조선전쟁은 미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은 이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미제는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수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전쟁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조선인민이 자기의 애국주의와 존엄을 피하여 승리한 전쟁이었다.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전쟁으로서 인류에게 높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 기회에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인 김일성동지께

### 로씨야, 라이단체 성명 발표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로씨야, 라이단체가 6월 26일과 7월 4일 연설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적 로씨야협회는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이 저들의 전략적리해관계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한데 대하여 까뻐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저들의 침략무력뿐 아니라 15개 추종국가 군대와 남조선괴뢰군, 심지어 우리 일본군의 잔당까지 동원하여 7월 27일 정전협정에 수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현재까지 령장이시며 수령인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와 당과 군대, 인민의 혼연일체, 대중적영웅주의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미국은 이것을 알 수 없었다.

가렬적절한 전쟁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빛나는 위훈을 세웠으며 조선의 권위는 비사히 높아졌다.

전쟁으로 재미만 남았던 조선은 오늘 위대한 나라로 전변되었다.

미국은 지나온 력사를 망각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도발행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오늘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갖춘 최강의 군대로 자라났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평화호적인 의지를 세계앞에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 단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도발자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이주제 사상연구조직은 64년전 청소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망하기 위해 보러던 미국의 꿈은 김일성주석의 두리에 곧게 뻗은 조선의 근대와 인민에 의하여 여지없이 깨어지고말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60여년전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화가 맞았으나 이것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다.

조선반도에 전쟁의 검은구름이 가시질 날이 없었던 지난 60여년간은 정전이 결코 평화가 아니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총들이 칼을 내대던 장교들이 조선반대대로로 맞선다는 것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연합없는 령장이며 철저한 대응방식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끝없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지구상에서 침략과 전쟁의 아성을 쏘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조선은 자주성이 강한 나라이며 현대를 하는 나라이다.

머지않아 세계는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신약같이 일어선 조선인민이 도발자들을 어떻게 징벌하고 최후의 승리가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조로친선관계발전의 새로운 력사적리정표

지금으로부터 14년전 조로친선관계에서는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

주제 89(2000)년 7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제 1차 로씨야방문대통령이 로씨야구주인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력사적인 조로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평양에서 진행된 조로수뇌상봉과 조로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친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념원이며 의지이다. 조로공동선언은 두 나라 인민들의 이러한 념원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조로공동선언에서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사이의 협조와 협력, 가일층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과 세계의 다국화를 실현하며 평화와 조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해나가는 시대적주제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동선언에는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주주의적 리로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완행하면서 이 과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지적하시었다. 또한 국제관계에서 힘의 사용과 주권 국가들의 안전, 세계의 평화

반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대할 데 대한 문제, 두 나라사이에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실현하고 발전시키는데 대한 문제, 중요한 국제문제와 관련한 두 나라의 원칙적립장 등이 밝혀져 있다.

조로공동선언은 친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력사적인 리정표이며 국제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세계평화보장의 추동력으로 된다.

조로공동선언 채택이후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높은 수준에서 활력있게 발전하여 왔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제 90(2001)년과 주제 91(2002)년, 주제 100(2011)년 3차례에 걸쳐 로씨야방문을 방문하시어 새 력사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시었다.

같은 날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야수적인 공민행동을 당장 중지할 것을 이스라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 지역의 평화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이란이 슬람교혁명지도자의

## 규탄 배격 받는 이스라엘

말디브대통령 이브드라 야인 아브둘 가이유이 14일 팔레스티나대통령 마흐무드 아바스와의 전화대화에서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무력침공을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탄원하고 팔레스티나에 대한 자기 나라 정부의 지지와 연대성을 표명하였다.

같은 날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야수적인 공민행동을 당장 중지할 것을 이스라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 지역의 평화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이란이 슬람교혁명지도자의

대외사업담당고문 알리 아크바르 벨라테가 14일 성명을 발표하여 가자지대에 대해 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유대복고주의정권이 저해의 율용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략탈적이며 부당한 전쟁을 일으켜 여성들과 어린이들까지도 무참히 살해하고있다고 단언하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 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 패배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방글라데시정부는 14일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제6차 브릭스수뇌자회의 진행

제6차 브릭스수뇌자회의가 15일 브라질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브릭스성원국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하였다.

《포괄적인 성장: 지속적인 해결》의 주제로 진행된 회의

에서는 성원국들이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호상협력력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지속적인 고 포괄적인 성장을 추동하며 금융활동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부산물로 벽돌을 생산하는 방법

종이 공장들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벽돌을 만드는 방법

에스파냐연구자들이 종이 공장들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견제공업부문에서 쓰이는 오염재료를 혼합하여 열전도성이 낮은 벽돌을 만들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 벽돌이 력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만큼 앞으로 연구사업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연구자들은 종이공장들에

서 나오는 일종의 부산물과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나오는 찌꺼기를 모은 다음 이것을 견제공업부문에서 쓰이는 오염재료를 혼합하여 열전도성이 낮은 벽돌을 만들었다.

이 혼합물이 압출기를 통과하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될 수 있다고 한다.

한 연구자는 《종이공장들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리용하여 만든 벽돌은 열전도성이 낮으므로 좋은 절연체로 될 수

있다. 다른 한가지 우점은 부산물이 유가물질이 들어있으므로 에너지를 산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벽돌생산과정에 연료소비량과 로에서의 건조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벽돌의 력학적저항이 일반벽돌에 비해 약한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있다고 한다.

벽돌 시공시 나타낸 벽돌에서 유독성물질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양은 매우 적으며 유럽동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인도네시아의 동부자바주에서 14일 리히터척도로 5.6의 지진이 일어났다.

【조선중앙통신】

##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이상기후현상과 흑심한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과 각종 자연재해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의연 심각하다.

지구상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하여 기후변화는 커다란 난문제로 되고있고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해마다 세계경제적손실액은 1조 2000억 US\$에 달하고있으며 이것은 세계공업생산액의 1.5%에 달한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전쟁피해를 능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우연치 않다.

세계경제연단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식량위기, 먹는물위기를 2014년의 최대위협으로 꼽고 있다.

이상기후현상과 그 원인

최근년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썰뚝한 무더위와 왕골로, 흑심한 우위와 눈보라, 보기 드문 무더기 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의 세계평균기온은 14.4℃로서 그전의 10년 동안의 평균기온보다 0.21℃ 올라갔으며 이것은 19세기 중엽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한다. 20~30년안으로 지구의 기온이 2℃ 상승하며 따라서 2050년에 가서 바다물면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밝힌 연구결과이다.

과학자들은 만일 기온이 20℃ 상승한다면 더 높아지면 세계적 인 식량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는 주되는 요인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전문가들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경우 21세기말에는 세계의 평균기온이 최고 4.8℃, 바다물면은 최고 82cm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유엔은 기후변화에 의한 토지 황폐화와 가뭄로 약 1200만ha의 농경지가 없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되는 첨예한 문제로 되었으며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흑심한 자연재해와 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현실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며칠째 계속된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 큰물로 복건, 강서, 호남 등 9개 성(자치주, 직할시)에서 사망자가 26명, 부상자가 3명, 행방불명자 33명, 7000명이 소개되었다. 수많은 살림집이 파괴되었으며 수십만ha에 심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하도 전국적으로

35℃이상에 달하였다.

에스파냐의 이 한 주에서는 살림이 불타고 있는 연기에 의해 대기가 심히 오염되었다고 한다. 구마와 로씨야, 남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살불에 의한 피해가 주민들이 생활상고충을 겪고 있다.

프랑스의 남부지역, 도이쉴란드의 서부지역, 중국의 운남성, 칠레의 북부해안지역, 튀르키예에서 폭풍과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행방불명되었으며 파괴적인 경제적손실을 입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과 자연재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방도들을 도출하고 다무적협

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도이쉴란트에서는 세계 각국의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총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었다.

여러 나라 정부들이 온실가스를 적게 방출하는 경제관리방식을 수립하고 환경을 지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물자, 농업, 운수부문을 관리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보다 좋은 생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김 철 룡